

섭리사의 영원한 영 부활

작성일 : 2012. 6. 2 (토) 오전 12시 30분

작성자 : 김슬기

(성령집회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 닿아 호흡도 깊어졌습니다.

그저 “아멘.”하고 손뼉 치며 끝낼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생님의 영 부활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싶었고,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기도했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내 사랑하는 자야.

내 이미 성령집회를 통해 깊은 말 전하였으나, 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닿았음으로 말하노라.

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포되는

시대 말씀을 깊이 새겨라.

한 번 듣고 머리로만

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니라.

이는 인간에게 주는 신의 역사이며 축복이다.

이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자에게

성삼위의 총명이 임할지이다.

때를 알아야 한다.

때를 알리고 밝히는 것이 시대 말씀이다.

시대 말씀이 곧 때다.

시대를 알리는 말씀, 곧 때를 알리는 말씀이다.

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야

때를 분별할 수 있고, 때를 맞이할 수 있다.

선생이 섭리역사를 시작함과 동시에

부활의 역사는 시작되었다.

하늘의 때에 따라

선생은 행하였고 구원의 사명자가 되었다.

구원이 무엇이나, 살려 주는 것이 아니냐.

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, 구원의 역사

곧 부활의 역사이다.

선생이 성자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함으로

육 부활이 이루어졌다.

즉, 2000년 전

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

나 성자의 육신이 죽은 바 되었으나,

한 때 두 때 반 때인 부활 기간을 거쳐

선생이라는 나의 육신을 통해

나 성자의 육이 다시 살린 바 되었다는 것이다.

이것이 부활이요 나 성자가 다시 오겠다는

재림의 약속을 이룬 것이 되었다.

육 부활은 곧 영 부활을 의미한다.

나 성자가 선생을 통해 육 부활을 이루어,

그 육신 쓰고 성약역사를 시작하여

시대 말씀을 전파하여 죽은 영육을 일으키니

이 행함 자체가 영 부활이며,

그 행함의 근본에 나 성자가 있기 때문이니라.

이는 나 성자와 선생이 100% 일체 되지 않으면

일어날 수 없는 역사이다.

(주님,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부활 기간을 거쳐 영 부활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새기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.)

육 부활은

영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.

즉, 1차 육 부활은 나 성자가

선생의 육신을 쓴 것이요,

2차 육 부활은 선생의 육신을

어둠의 세력 앞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요,

이로 말미암아 살려진 그 육신을 통해

나 성자의 뜻을 때에 따라 밝히어 차원을 높이니

이는 곧 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,

이것이 육 부활을 통해 영 부활을 이룬다는 것이다.

즉, 온전히 산 자의 육을 통해

온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룸을 뜻한다.

부활 역사는 곧 시대 말씀을 통해

일어난다고 하였다.

자, 때를 보아라.

지금 쏟아지는 엄청난 말씀들을

보고 들었지 않느냐.

선생은 그곳에서 계속해서

육 부활, 영 부활을 이루고 있다.

선생의 영 부활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.

너희가 영계를 볼 수 없지만

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.

바로 시대 말씀이다!

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.

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.

이는 부활의 말씀이며,

한 차원 더 높아지는 말씀이다.

말씀으로 확실히 나타난 선생을

느껴 보고 깨달아 보아라.

그것이 바로 영 부활의 증거다.

말씀을 통해 섭리사 전체가 한 차원 더 높아져

영 부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.

성령집회 때 말씀한 바와 같이

하늘에서 먼저 뜻을 두고 시작한 다음

땅에서 이론다 하였다.

이처럼 너희에게

영의 입장인 선생이 먼저 부활한 다음

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너희들은

그 복음을 듣고 행함으로 선생을 따라

성약역사 한 차원 높이는

부활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.

(주님,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. 영으로 오시는 선생님을
생각 하지 못했어요.)

말씀이 육신이 되어

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 자체가

부활이다.

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

말씀을 통해 선생을 만난 것과 같고

그를 통해 나 성자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다.

(주님, 섭리사가 독립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
역사가
일어나는 것입니까?)

시대권의 독립을 뜻한다.

즉, 구시대의 관에서 완전히 독립된다는 것이다.

게 비유를 들어 선생을 통해 말하지 않았느냐.

섭리사가 새 시대를 맞이하였으나

그 관이 구시대로 돌아가 있기에

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여

선생이 게 다리를 교정해 준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.

그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난다.

이는 곧, 완전히 선과 악이 분립됨을 뜻하기도 한다.

이 때 더욱 기도하고 행함으로 100% 만들지 못한
자는

이 완전한 역사의 주관권 안에 존재하기 힘들 것이
다.

독립된 하나의 역사.

이에 대해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.

한 차원 더 높여 생각하고 보아라.

구시대가 그 발판이 되기는 하나,

시대 주관권이 다르고

구원의 차원급이 다른 역사이다.

그러니 하나로 독립해야 하지 않겠느냐.

섞일 수 없다.

구시대 관, 구시대 사명자,

올해는 이것을 모두 뒤엎고 새롭게 하여라.

인식관을 바꿔야 차원이 높아진다.

그래야 이 시대급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.

이때를 맞이함을 진정 귀히 여기고 감사하여라.

선생이 부활역사를 맞이하기까지

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었는지

가슴 깊이 새겨라.

선생의 조건으로 섭리사가

이때를 맞이하게 된 것임을 알아라.

또한 근본 되는 성삼위임을 인식하여라.

사랑하여 영원한 영 부활로 이끄는 성자이니라.